

# 제과기업, 트랜스지방 제로화 선포

롯데 · 오리온, 2007년부터 전제품 제로화 ... 크라운 · 해태도 마무리

제과기업들이 2007년 들어 트랜스지방 제로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롯데제과는 2007년 전제품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제로화했다고 1월12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카스타드, 마가렛, 꼬깔콘, 초코파이를 비롯한 자사의 거의 모든 제품이다.

이와 함께 2007년 12월부터 도입되는 트랜스지방 함량표시를 1월로 앞당겨 시행중이며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다섯 가지 영양정보와 당,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함량도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포장전면에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는 트랜스지방 저감화를 위해 테스트포스를 운영하고 2006년 6월부터 전제품 중 90% 이상에서 트랜스지방 제로화에 성공했으며 연말에 전제품 트랜스지방 제로화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오리온도 전 제품에서 트랜스 지방을 없앴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2001년부터 세계적으로 트랜스지방 연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웨덴 AAK(Aarhuskarlshamn) 연구소와 트랜스지방 저감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트랜스 지방 함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열량 등 영양성분을 포장 앞면에 표시하고 있다.

이밖에 크라운, 해태제과도 트랜스지방 제로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영양성분 전면 표기제를 조만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12>